

북구 100mm 이상 폭우 속 ‘아트마켓’ 강행... ‘배려 부족’ 논란

지난 주말 향토음식박물관서 진행
당일 오전 수차레 재난안전문자
실제 장대비 등에 ‘셀러’ 일부 불참
區시설관리공단 “약속 지키기 위해”

최근 광주에 하루 동안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외출 자제’ 안내 등이 이뤄졌으나, 북구가 당일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참여자와 이용자 모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24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1일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 ‘맛있는 예술 여행센터’ 일원에서 ‘전통의 맛, 미래의 감각’을 주제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총 3천만원을 들여 ‘아트마켓’을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고유의 미식 콘텐츠를 제공하며 지역민과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만드는 데 주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남파고택 음식·전통양금 꽃케이크 체험과 테마별 마켓존을 준비, 운영했다.
크게 ▲로컬 마켓존 ▲지역작가 마켓존 ▲스

토리 마켓존 ▲전통·테크 공예존으로 나뉜 테마별 마켓존은 사전 모집한 지역 ‘셀러’ 50여팀의 참여로 꾸러졌다.
문제는 지난 21일 광주 지역은 광주시와 행정안전부 등이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외출 자제를 안내할 정도의 폭우가 예보됐는데, 사전 조정 없이 예정대로 행사가 치러졌다는 점이다.
실제 행사 당일 광주 지역의 강수량은 133.5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38.1mm를 기록할 정도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다.
이에 행사를 준비한 북구시설관리공단 등은 야외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일부 마켓존을 모두 실내로 옮겨 운영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10팀 안팎의 셀러들은 장대비로 인해 행사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행사 대부분이 실내로 전환되면서 폭우와 강풍으로 인한 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많은 비의 영향으로 행사장을 찾는 이들이 기대보다 적어지면서 목표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셀러들은 “마켓 개최 날짜를 바꿨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멘소리에 이어 “공했다”는 뒷말까지 남겼다.
익명의 한 셀러는 “마켓 당일 오전 날씨를 보면서 이 정도의 비를 뚫고 과연 손님들이 올지 걱정했는데, 우리대로 준비해 온 상품의 상당 부분을 다시 가져가야 했다”며 “주최 측이 기상 상

황에 맞춰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건 고맙지만, 날씨가 좋은 날을 다시 잡아 진행했으면 더 좋아겠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북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행사가 치러지면서 아쉬운 부분이 생겼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준비 단계에서 예보를 확인했을 때 당일에는 비소식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스를 여는 하루가 소중한 셀러분들도 있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위험하지 않게 준비했다”며 “올해 미비점을 보완해 다음 행사는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재영 기자



다시 장맛비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며 비가 내린 24일 오전 광주 동구 호남동 광주천변 도로에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다. /김애리 기자

檢, 신정훈 의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구형

‘이중투표 유도’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내달 22일 선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전 선거구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 사실을 숨기고 일반 시민 자격으로 투표하라는 등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신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문제가 된 발언이 계획적으로 나온 게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의 불복으로 열린 이번 항소심에서도 신 의원 측은 사실 관계를 다투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당시 현직이었던 만큼 다른 출마자보다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타당성은 있지만,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나 부정선거 운동의 목적이 있었다면 경쟁 후보자의 지지자도 있는 장소에서 문제가 된 발언을 했을 리 없다”며 “실제 이중 투표가 이뤄졌는지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본인은 “무지함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국가적인 위기,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맡은 직무를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신 의원에 대해 선고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비하 누리꾼 ‘벌금 3천만원’

법원 “실형 대신 책임 비례 고액”
추모 방해·기본적 공감 결여 지적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당시 유가족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댓글을 단 30대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1일 제주항공 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댓글로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2차례에 걸쳐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박 대표에 대해 댓글로 ‘유가족이 맞냐’, ‘민주당 당원’ 등을 게시했는데, 이는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제주항공 참사로 가장 많은 지역민이 희생된 광주에 거주하는 A씨에 대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여러 양형 사유를

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행복했어야 할 여행길에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여객기 참사의 피해자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에 공감하며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아파할 때 A씨는 허위임이 분명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들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비록 게시글이 경멸적인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거명하며 이 사건을 정치화하려 한 의도가 명백하다”며 “이러한 범행은 고인들에 대한 추모를 방해하는 것이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공감조차 결여된 것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는 “참사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애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과속 단속 불만’ 40대 운전자 경찰서 돌진

순천경찰, 구속영장 신청

짖은 과속 단속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청사로 돌진한 40대가 구속 기रो에 놓였다.
24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특수견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A(4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8시23분께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고 순천경찰서 건

물로 돌진한 혐의로 입건됐다. SUV는 현관 유리문을 뚫고 건물 내부 벽면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자주 적발돼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올해에는 10차례 이상 과속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정기 기자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착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

CMYK